

모던 시대와 포스트모던 시대의 샤넬 스타일 특성 비교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hanel Style between Modern and Postmodern Period

박숙현 · 이관이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Park, Sook Hyun · Lee, Kwan Yi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sung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usa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 of Chanel style between modern and postmodern period. The documentary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The modern period was limited from around 1920 through 1939 and the postmodern period from 1990 through present for this research.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characteristics of clothing style in modern period were 1) the preference of slim & straight body figure as ideal one and slim & straight clothing silhouette, 2) the high fashion image for the elite by simple & basic design, 3) the emphasis on the harmony by the unity, 4) the tendency of eliminating ornaments on clothing, 5) the discontinuation of traditional way of dress code & style, and 6) the modern style. The characteristics of clothing style in postmodern period were 1) the emphasis on erotic aspects of female body and sexy design, 2) the popularization of high fashion and certain social group's fashion, 3) the tendency of harmony by mix-match, 4) the preference of ornaments in clothing, 5) the preference of retro-fashion, and 6) the continuation of modern style.

Key words : modernism, postmodernism, characteristics of style

I. 서론

20세기 초 기계생산품에 적합한 새로운 미적 규범의 확립과 함께 사회전반에 걸친 변혁으로 근대적인 것에서 벗어나 기능주의적 모더니즘 시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로 오면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문화 사회가 형성되면서 모더니즘적 경향들은 개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던한 경향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시대·문화적 흐름은 패션분야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되어졌다.

모던시대에 적합한 미적 기준에 의해 탄생되어 반모더니즘적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포스트모던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시대변화를 예측하고 독창적인 유행 스타일을 창조해내야 하는 패션디자이너 분야에서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의 기준에 의해 탄생된 '샤넬' 브랜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모던시대와 상반된 유행의 흐름이 지배적이었던 20세기말에서 현재까지 어떤 디자인 전략과 특성으로 패션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단순하고 직선적인 모던스타일에서 시작한 샤넬스타일이 절충적이고 다원화된 디자인이 혼재한 현 시대사조 하에서 어떤 독창적인 결합방법을 시도하여 원래의 디자인의 미적 기준과는 상반된 경향이 우세한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창출해낼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브랜드별 디자인 컨셉의 방향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기말의 포스트모던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샤넬컬렉션을 중심으로 모던패션디자이너의 원형으로 자리매김한 샤넬스타일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을 비교·분석하여 모던 디자인적 특성에 어떤 트렌디(trendy)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시대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브랜드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

Corresponding author : Park, Sook Hyun

Tel : 051-620-4663 H.P : 011-9340-4663

E-mail : shpark@star.ks.ac.kr

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으로 행해졌다. 시대정신과 예술사조에 관한 고찰은 산업디자인 및 복식분야 문헌을 이용하였고, 샤넬컬렉션에 나타난 작품들의 비교·분석은 L'Officiel, Elle, Mode et Mode 등의 잡지류 및 샤넬 자서전, 그리고 www.firstview.com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모던 시대는 1920~30년대로, 포스트모던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모던한 조형물들이 유행하였던 1990년대부터 21세기 초인 현재까지로 제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모더니즘의 개념

모더니즘(Modernism)은 제한된 의미로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서구예술에 풍미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운동, 혹은 예술의 작품형식과 사상을 설명하는 개념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Atkins, R. 1990). 기계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의 창출이 불가피하여졌고,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따른 형태를 현대 디자인으로 완성시킨 것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가 설립한 바우하우스(Bauhaus)의 이념에 의해 나타난 간결하고 기하학적이고 기능적인 형태의 조형물들이 탄생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모더니즘적 특징들이 나타났다(김민수, 1994). 모더니즘이란 이성에 기반을 둔 객관성의 논리로 20세기 전반기 시대정신을 형성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객관성의 논리에 따라 모던 시대는 전체성, 보편성, 총체성, 통일성 등을 중시하여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규범과 체제 아래 모든 삶들이 종속되는 사회구조를 형성하였고, 모던 사회에서는 엘리트 계층과 대중은 엄격히 구분되었으며 엘리트계층이 시대를 지배하는 주체가 되었다(김민수, 1997; 김민자, 1998).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의 태동은 기계화, 표준화 그리고 산업 발전에 의한 대량생산의 이념과 밀접하게 관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합리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데올로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근대화 운동이었다(정시화, 1992).

2. 모더니즘적 사회현상과 샤넬 디자인

20세기 초 기계시대가 도래하면서 탄생된 현대 디자인

의 대표적 특징은 르네상스 이래 19세기까지의 대부분의 조형물에 나타난 장식과 곡선적 형태를 탈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것을 부정하면서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했다. 또한 19세기까지 주로 수공 작업에서 표현할 수 있었던 섬세한 장식의 표현이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 시대로 오면서 적절치 않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생산 방식에 적합한 미적 기준에 의한 적절한 형태 탐색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현대디자인은 단순하고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이며 절제되고 장식이 배제된 간결한 형태로 정착되었다.

제 1 차 세계대전은 정치·사회·경제에서부터 인간의 삶의 방법 및 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친 변혁과 함께 근대적인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던디자인 시대로 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전쟁은 여성들의 삶의 방식도 완전히 바꿔놓게 하였다. 전쟁은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시켜 외부세계로 눈을 돌리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존재를 벗어나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활동적인 여성상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과잉장식과 디테일을 제거하고 날선하고 복잡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증가되었다(McDowell, 1984).

샤넬은 이러한 경향을 일찍 인지하여, 독창적이고 편안함을 중시한 단순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1920년대의 패션에 지속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Bond, D., 1981). 샤넬이 창조한 남성적인 가슴의 소년 같은 보이쉬 스타일(Boyish Style)의 유행은 모드 사상 완전한 혁신 혹은 여자다움의 개념상에서 전면적인 혁명이었다. 허리와 가슴의 곡선미가 사라진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머리는 남성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하게 매우 짧아졌다.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정도까지 짧아지게 되어 그 시대의 요구였던 자유로움과 활동성을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길고 세련된 다리가 각광을 받았다(허준, 1992).

색상의 사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유행색인 파스텔색이나 원색에 반대하며 검은색과 베이지를 과감하게 사용하여 현대적인 이미지로 변화시켰다. 특히 검은색을 '모든 색을 이기는 절대적인 색'으로 승화시켜 대중의 색으로 만들었다(Morand, 1976).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도 실용성이 강한 저어지(jersey)나 구김이 없는 트위드(tweed)를 비롯하여 몸의 움직임이 그대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니트류의 소재도 사용하였다. 주로 남성의 속옷에만 사용되었던 소박한 소재인 저어지는 전쟁으로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패셔너블한 디자인으로 등장되었고, 이러한 샤넬의 참신한 발상은 전쟁터에 나간 남성 대신 사회에 진출해야만 했던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이미숙, 1998).

3.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가 널리 파급되어 논쟁을 불러일으킨 시대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나 지금까지도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에 대한 의미에 일치할 수 없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서성록, 1993; 김민수, 1997).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기본성격이 확고한 고정범주에 머무는 것이 아닌 극도의 탄력적 속성을 지니고 각각의 독특한 영역 사이의 경계를 와해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전제로 계승, 비판, 반동, 또는 대안적 양식 또는 문화 현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론가들의 제 이론을 논함에 있어서 모더니즘과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김옥동(1994)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을 논의하는 데서 이론가들의 입장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모더니즘의 연장으로, 둘째는 모더니즘과 상반된 개념의 포스트모더니즘이다.

모더니즘의 계승·연장, 또는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해 온 대표적인 이론가는 미국의 네오리얼리즘(Neo-Realism) 이론가인 제럴드 그래프(Gerald Graff, 1979)이다. 그는 서구 세계를 풍미해 온 문화적 전통과 예술적 인습도 몇몇 이론가의 주장처럼 쉽게 붕괴되지 않고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입장 단절이 아닌 모더니즘의 기본 전제들을 논리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 설명하였다.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 1976)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의 연속체로 파악하고 논리적인 면에서 극한 점으로 밀고 나가 모더니즘 의도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프랭크 커모우드(Frank Kermode, 1968)는 그의 저서 “연속성”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자체의 사용을 거부하고 신 모더니즘과 구 모더니즘으로 구분했는데 구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신 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을 가리킨다. 커모우드의 관점에서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본질적인 면에서 모더니즘과 별 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인정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과의 의식적 단절과 비판적 반작용, 탈(脫)모더니즘·반(反)모더니즘으로 파악한 대표적 이론가는 네덜란드 이론가 도브 포크마(Douw W. Fokkema, 1984)이다. 그는 낭만주의가 리얼리즘에 의하여, 리얼리즘이 상징주의와 모더니즘에 의하여 교체된 것과 동일 맥락에서 모더니즘이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교

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빙 하우(Irving Howe, 1970)는 그의 논문 “대중사회와 포스트모던 소설”에서 그는 “마침내 우리는 모던이라고 불리는 문화적 불안과 혁신 그리고 흥분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한 시대의 종말에 이르렀다.”고 천명한 다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를 가리켜 “대중사회” 그리고 이 대중사회에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문학을 가리켜 “포스트모던”이라고 불렀다. 레슬리 피들러(Leslie Fiedler, 1977)는 모더니즘의 죽음을 선고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김옥동이 분류한 두 유형 외에 건축가 겸 이론가인 찰스 젠크스(Charles Jenks, 1987)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지속과 초월이라는 이중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학 비평에서 그 개념을 빌려와 건축이론에 적용한 젠크스는 조형예술 분야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확고히 해 주었다. 그는 오늘날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모더니스트에 의해 길러졌을 뿐 아니라 현대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 사회적 실체들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모더니즘과 반모더니즘적인 이중적 성격을 필연적으로 갖는다는 것이다.

4. 포스트모더니즘적 사회현상과 패션

하나의 중심화된 규범에 따라 살아야만했던 모던시대와는 달리 중심부의 단일한 이론에 의한 유기적인 통일과 총체성보다는 사회자체의 단편화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가 더 중시되는 탈 중심화 현상이 나타난 후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대량소비시대의 경제는 개인의 필요와 새로움에 대한 욕망, 남과 다른 차별성과 즉각적 만족 등을 창조하도록 요구되고 있다(강명구, 1993). 탈 중심화 현상은 패션에 있어서도 모던시대의 한 두가지 스타일의 유행에 의한 단순한 수용보다는 다양한 스타일의 유행이 공존하므로 소비자는 각자의 취향과 개성에 적합한 스타일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의 큰 유행의 흐름 속에 자신들을 맞춰야 했던 시기에서 각자의 개성에 맞는 끝없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야 하는 시기의 패션은 무한한 스타일의 혼재를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해 내는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하에서 디자이너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동시에 도입하게 됨으로써 패션에 다원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대중은 주체가 아닌 객체였으며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위치한 소외된 계층이었다. 대중들은 교육을 받은 자, 지식

인, 화이트 칼라로 지칭되는 엘리트 중심주의 사회 속에서 고급문화의 중심에 머물 수 없는 대상이었다(김옥동, 1994).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던시대에 형성되어진 거대한 장벽들을 허물어뜨리면서 탈 계층화 현상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탈 계층화 현상에 따라 대중적 스타일이나 하위문화집단의 스타일이 하이패션에 수용되는 유행의 상향전파현상과 이를 다시 대중이 수용하는 유행의 하향전파가 동시에 일어나는 등 계층에 따른 유행전파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포스트모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 해체주의를 최초로 표명한 데리다(J. Derrida)는 전통적 규범과 사고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다. 구조주의 이론과 플라톤 이래의 서구 형이상학 근본 이론에 대한 강력한 반발인 동시에 기존의 고정 관념적 중심성을 해체하고 "타자 인식적 사고"를 대동시킨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을 일으켰다(Marub, 1993)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선언 이후 해체주의적 사고와 이에 바탕을 둔 패션이 등장하였는데 기존의 목식규범을 파괴하는 다양한 실험적 시도가 해체주의적이라는 주장아래 이루어졌다(김주영, 양숙희, 1997)

모던시대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지배계층은 대중 통치의 한 방편으로 개인적 열정, 정서, 감정 등을 지성, 이성 그리고 보편적 질서 속에 종속시켰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대에 오면서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어 디오니소스적 특성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김민자, 1998). 이러한 시대의 복식에 대한 관심은 '지식에서 경험으로', '이론에서 실제로' '마음에서 몸으로' 변천하는 등 지식의 강조에서 존재의 강조로 가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변천과 일치한다(정홍숙, 1995). 이렇듯 육체와 물질적인 것의 가치를 더욱 중시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육체는 성의 상품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슬림한 전체 실루엣에 신체의 가장 은밀한 곳을 제외한 인체 각 부위의 과도한 노출, 몸에 밀착된 복식을 통해 인체곡선을 강조하는 바디 컨셔스 라인(Body Conscious Line)의 과장 등으로 패션계는 에로틱한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창조한 모더니즘과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은 과거의 여러 양식을 모방하고 응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복고주의현상이 복식 분야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자율성에 의존하는 시대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수용되어 포스트모더니즘이 복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80년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복식 표현에 있어 중요한 특성이 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사고와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패션에

는 어떤 규칙도 없이 어느 시대의 어떤 스타일이 복합되었는지도 모르는 절충적이고 다원화된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이 표출되었다.

Ⅲ. 모던 · 포스트모던 시대의 샤넬 스타일 비교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정의를 내리기 불명확한 포괄적이고 절충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특히 찰스 잭크스 외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였듯이 반모더니즘적 특성 외에 여전히 모더니즘적 성향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론처럼 샤넬컬렉션에는 모던 시대에 나타났던 스타일의 특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던한 특성만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브랜드 컨셉을 고수했다면 포스트 모던한 시대에도 여전히 최고의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하는 결과는 모던시대의 미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었던 샤넬 스타일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반모더니즘적 경향의 포스트 모던한 특성이 의복스타일에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면서 기존의 스타일을 창조하게 했던 원칙과는 어떤 상반된 개념을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의복은 다른 조형물과는 달리 인체에 입혀짐으로서 비로소 그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조형물이므로 과거와 현재의 스타일 차이가 인체이상형, 신분, 조화, 복고적 스타일, 장식, 모던스타일등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체이상형 관련 특성 비교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던 모던시대에서 이성에 억압 당했던 낭만적인 감성과 인간의 정서를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도래함(Nietzsche, 1982)에 따라 육체가 성적 도구로 전락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서 성의 개방과 대중화를 초래하였다. 모던사회의 보편적 질서와 객관화를 위해 이성이 감성을, 남성이 여성을, 과학이 자연을, 정신이 육체를, 필요가 욕망을 지배하던 시대에서 포스트모던 사회가 도래하면서 억압된 모든 것이 탈피하는 방향으로 사회현상이 변화되었다(김민자, 1998).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의복에 입혀지는 육체로 옮겨져 이성중심의

모던 시대에 나타낼 수 없었던 개개인의 감성과 본능이 중시되면서 서로 다른 성을 향한 욕망은 인체의 가치를 높여놓았다. 또한 현대의 상업주의는 이런 현상을 이용하여 여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부위를 노출, 밀착, 비침 등의 방법으로 섹시한 스타일의 유행을 초래해 퇴폐향락적 분위기의 세기말 현상과 맞물려 20세기말부터 21세기초인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 모던시대: 여성적 라인이 배제된 날씬하고 작고 직선적인 인체선호와 유행스타일

모던시대에는 기능적인 모더니즘의 경향으로 대부분의 조형물이 직선적이며 장식이 배제된 단순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복식에 반영되어 <그림 1>의 사진처럼 직선적인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므로 20년대는 선천적으로 여성의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신체를 타고난 사람에게는 불행한 시대였다.(Lurie, 1981) 이들은 당시의 소녀같이 납작한 이상적인 체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굵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또한 버스트 바인드(Bust Binder)라는 가슴을 납작하게 하는 속옷을 사용하기도 하고, 몸을 납작하게 하는 코르셋을 착용하여 허리와 가슴의 곡선미를 무시하고, 몸통을 평면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였다(Hall & Swanson, 1983). 이러한 평면적인 체형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몸의 곡선이 잘 드러나지 않는 빈약한 체형이 적합하였으므로 20년대는 마른 체형이 선호되었다. Cecil Seaton은 20년대 현대 미인(the modern venus)의 빈약한 체형을 풍자적으로 과장하여 <그림 2>과 같이 표현하였다(Hall & Swanson, 1983).



그림 1. 직선적 실루엣, Little Black Dress, 1926 (Le Temps Chanel)



그림 2 20년대 이상형 풍자화, Beaton 1928, (The Twenties in Vogue)

2) 포스트모던 시대: 키 크고 날씬하면서도 글래머러스한 인체선호와 유행스타일

포스트 모던시대에는 다양한 컨셉의 수많은 브랜드가 존재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섹시한 이미지를 기존의 컨셉에 포함시켜 모던 섹시, 섹시 엘레강스, 클래식 섹시, 섹시 힙합, 섹시 캐주얼 등의 용어를 만들어놓았다. 여성의 인체곡선을 무시하고 스트레이트 실루엣에서 출발했던 샤넬스타일이 포스트모던 시대부터는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인체 곡선을 과장하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전성기였던 세기말에서 세기초로 가까워 오면서 여전히 가슴과 힙 그리고 엉덩이 곡선을 강조는 하지만 조금씩 완만한 곡선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에로틱한 요소를 살릴 수 있는 인체의 성적부위가 강조되는 스타일의 유행현상은 지속되었다. 이는 80~90년대 인체 이상형을 잘 나타내던 클라우디아 슈퍼, 나오미 캠벨, 린다 에반젤리스타, 헬레나 크리스텐센 등 가슴과 힙이 풍만하고 허리가 잘록한 수퍼모델들이 샤넬의 런웨이쇼(run way show)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슬림한 몸매에 적당하게 볼륨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가슴과 허리, 힙의 차이를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들의 출현이 두드러진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포스트모던 시대의 이상형의 변화에 맞춰 샤넬스타일에도 섹시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다. 그림<3, 4>은 세기말, 세기초의 여성의 이상적 체형과 에로틱한 복식 스타일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세기말 섹시스타일
(‘91-92 A/W Mode et Mode)



그림 4. 세기초 섹시 스타일
(‘03-04 A/W L'Officiel No.24)

2. 신분관련 이미지 특성

남성과 여성, 엘리트계층과 대중,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등의 이분법에 의해 힘을 가지고 중심에 선 자와 힘없고 소외된 계층으로 나뉘어졌던 모던 시대와는 달리 탈계층화, 탈중심화를 주장하며 신분이나 삶의 명확한 기준의 벽을 허물어버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김옥동, 1994)에는 모던시대 메인 스트림에 속하지 못했던 계층의 패션과 문화가 엘리트계층으로 역전파되는 유행의 상향전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 모던시대: 엘리트 계층을 위한 고급이미지

모던복식에 나타난 엄격한 비례에 의한 전체적인 통일감과 조화를 중시한 직선적이고 단순한 의복은 지적이

고 엘리트적인 느낌의 고급취향을 표현하는 조형물들이 나타난 공통된 특성이다. 자연스런 인체의 실루엣의 변형을 초래 할 수 있는 다양한 디테일과 트리밍 등의 사용은 주로 저급하거나 대중적인 계급에서 볼 수 있는 인간 본능과 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천한 것으로 여겨졌다.(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M. Calinescu, 1993) 따라서 샤넬복식에 나타난 합리적 계획에 의한 순수한 기능성과 간결한 형태에 의한 단순성의 추구는 인간의 감정·정서·직관보다는 이성과 본질을 추구하는 엘리트적 성향을 가진 계급을 위한 복식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2) 포스트모던시대: 대중적이미지의 수용 및 고급이미지와 결합

샤넬컬렉션에 자주 나타나는 레이어드 스타일과 다양한 장식과 소품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의 중복사용 등은 오리지널한 샤넬스타일과는 상반된 이미지의 산만한 히피스타일의 변형으로 잘 표현된다. 히피스타일은 60년대 말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반항적인 젊은이들의 하위문화 집단을 중심으로 나타난 패션인데 당시에는 반패션(anti-fashion)으로 받아들여졌으나 포스트모던시대 오면서 차츰 하이패션으로 도입되어 새로운 유행으로 정착되었던 스타일이다. 단순하고 정돈된 스타일인 샤넬스타일과 비위생적이고 전통적 복식규범에 어긋나던 아이템들의 조합이나 새로운 착장법에 의한 히피스타일이 적절히 잘 결합하여 포스트모던시대 mix-match 현상을 잘 대변하는 대표적인 복식스타일로 자리잡았다. <그림 5, 6>는 대표적 하위문화 그룹 중 하나인 히피스타일의 대중화와 고급화 경향이 잘 나타난 작품들이다.

모던이미지 외에 클래식 엘레강스 이미지를 잘 표현했던 정통 샤넬스타일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21세기 들어서면서 나타난 스포츠패션의 대중화 경향을 반영하여 샤넬컬렉션에도 스포티브 패션이 선보였다. 최근 과거의 유명 브랜드들이 리뉴얼 작업 및 새로운 디자인의 영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젊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과거 젊은이들의 복장이라 할 수 있는 캐주얼 스타일과 운동복으로 사용되던 특정 목적을 가진 기능성 의복들을 패셔너블하게 변화시켜 일반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샤넬컬렉션에서도 스포츠패션 및 캐주얼스타일을 선보여 젊어지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패션상품을 제공했다. 복식에 나타난 완벽한 균형과 비례감, 절제된 미에서 느껴지는 엘리트적 이미지 그리고 완벽한 재단 및 봉제로 최고급 품질로 유명한 샤넬 컬렉션에서도 이제 저속한 대중의 이미지를 변화시킨 디자인이 많이 나타난다.



그림 5. 히피스타일 I ('92 S/S Collection)



그림 6 히피스타일 II ('03-'04 A/W L'Officiel No.24)

<그림 7>은 기능성만을 강조하여 전혀 고급스러움을 추구하지 않았던 스포츠복이 대중들의 일반복식으로 정착되면서 샤넬 컬렉션에서 선보인 겨울 스포츠복을 응용한 작품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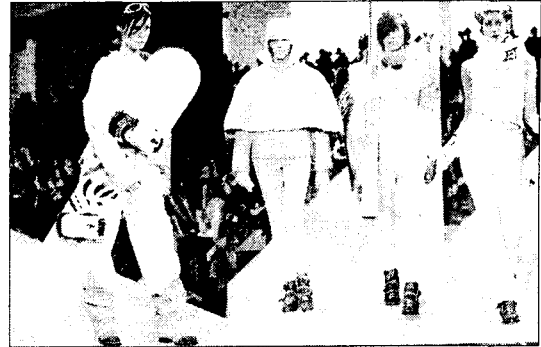


그림 7. 스포티브 스타일 ('02-'03 A/W L'Officiel No.17)

3. 조화(harmony) 관련 특성

1) 모던시대: 통일감있는 조화미 증시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대 미의 기준에 적합한 조화로운 스타일의 창조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중시되었던 모던 시대의 미적기준은 플라톤식의 이데아적 절대미의 추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현실적 경험미의 원리적 고찰로부터 크기와 질서의 종합된 원리에 따라 이상화되는 미 개념의 지적 전통들과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김민수, 1994) 이러한 고전시대의 조형물의 미적원리는 바람직한 비례와 균형 그리고 통일감에 의한 조화로운 창조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적 원리하에서 창조된 샤넬스타일은 소재, 색상, 디자인, 실루엣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통일감을 나타낸다.



그림 8 전체 조화를 증시한 스타일 (CHANEL-The Couturiere At Work)

샤넬스타일은 조형요소들이 적절히 배치 또는 조합되어 상호 일관된 성격을 가지고 질서 있게 코디네이션 된 것들이 많다. 복식의 조형요소 서로간에 질서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조화를 이루어내는 스타일이 바로 모던 스타일의 큰 특성 중 하나이다. <그림 8>은 샤넬 자신이 모델이 되어 착용하고 있는 복식으로서 색상, 소재, 전체 디자인 및 소품과의 코디네이션에서 통일감 있는 조화로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2) 포스트모던시대: 부조화의 조화미의 수용



그림 9. 이질적 소재, 액세서리, 이미지 결합
(‘03-’04 A/W L’Officiel No.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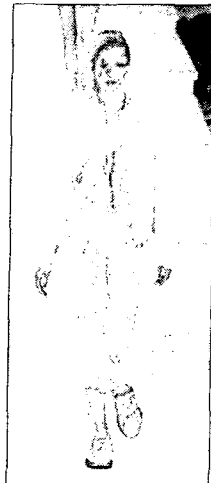


그림 10. 이질적 이미지의 아이템 및 이질적 소재의 결합
(www.firstview.com, Chanel, ‘01 S/S)

포스트모던시대의 패션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용어 중에 mix-match, no-match-mix,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 등 서로 다른 요소들의 조화현상과 관계되는 것들이 많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양식의 특성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절충적인 경향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모든 오브제나 요소들을 사용하여 적당히 혼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정시화, 1992). 이런 현상이 패션에서는 고급스러운 것과 저급스러운 것의 결합, 전혀 다른 이미지의 액세서리와 의복의 결합, 이질적인 의복소재의 결합,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의 아이템별 결합 등으로 나타났다. 샤넬스타일도 이런 경향을 그대로 도입하여 전혀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된 액세서리 코디, 그리고 이질적 소재의 결합에 의한 서로 다른 이미지의 결합, 그리고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과의 혼합 등 상반된 조합에 의한 현대적 부조화에 의한 조화현상을 나타내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림 9>는 이질적인 소재 조합, 이질적인 이미지의 아이템 조합, 이질적인 의복과 액세서리의 조합 등을 잘 나타내는 복식이고, <그림 10>은 스포티브한 이미지, 로맨틱 이미지, 섹시 이미지 등의 다양한 디자인과 이질적 소재의 결합으로 부조화하게 나타낸 작품이다. <그림 11>은 드레시한 스타일의 블라우스와 스커트, 가죽 점퍼와 가죽모자 그리고 핑키한 느낌의 체인 액세서리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나타내는 아이템들의 매치이면서도 부조화의 조화가 느껴지는 스타일이다.



그림 11. 이질적 이미지의 아이템 결합
(CHANEL, Baudot)

4. 장식 관련 특성

1) 모던 시대: 장식 배제 경향

20세기초 기계시대가 도래하면서 탄생된 현대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는 르네상스 이래 19세기까지의 대부분의 조형물에 나타난 장식을 배제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까지 주로 수공 작업에서 표현할 수 있었던 섬세한 장식의 표현이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시대로 오면서 적절치 않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생산방식에 적합한 미적 기준에 의한 적절한 형태 탐색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현대디자인은 단순하고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이며 절제되고 장식이 배제된 간결한 형태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의 확립기인 1920년대 탄생한 직선적이고 단순한 샤넬스타일은 현대디자인 원리를 잘 표현한 현대복식의 원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장식이 배제된 단순한 샤넬 스타일은 장식이 많은 옷보다는 단순한 스타일이 사람이 아닌 기계(재봉틀)에 의한 당시의 생산방식에도 적합하였다. <그림 12, 13>은 디테일과 트리밍에 의한 장식적 요소가 거의 없는 자신의 작품을 본인이 착용하고 있는데 유일한 장식은 직물에 나타난 문양<그림 13>과 복식이 아닌 보석류이다.



그림 12. 장식이 배제된 스타일 I
(CHANEL-The Couturiere At Work)

2) 포스트모던 시대: 장식 선호 경향

포스트모던 경향이 지배적이던 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패션계에서는 복고주의, 절충주의적 경향이 만연하면서 과거의 장식적 경향이 나타나고 기존의 요소들을 결합해 새로운 장식을 만들어 내는 등 장식 선호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샤넬스타일은 기존의 스타일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다

양한 디테일과 트리밍 그리고 다양한 장신구 등을 이용해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샤넬 컬렉션을 살펴보면 패션디자인의 요소 중 장식부분에 나타난 대부분의 디테일과 트리밍을 아주 다양하게 매 시즌마다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단정하고 세련된 수트에 키치적 요소가 가미된 혼잡스러움을 의복의 부분에 사용하거나 또는 의복 전체에 다양한 장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에서 의복만 단순히 그 외 소품과 액세서리, 장식 등을 혼용해서 조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순성과 복잡성을 잘 조화시킨 패션으로 현재의 소비시장에서 전통성과 현대성을 공유한 브랜드로 정상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그림 14, 15>는 여러 가지 디테일과 트리밍 그리고 장신구, 소품 등이 한 작품에 다양하게 나타난 예이다.



그림 13. 장식이 배제된 스타일 II
(CHANEL-The Couturiere At Work)



그림 14. 다양한 장식이 첨가된 스타일 I
(‘03 S/S L’Officiel No.30)



그림 15. 다양한 장식이 첨가된 스타일 II
('02-'03 A/W L'Officiel No.17)

5. 복고주의 스타일 관련 특성

1) 모던시대: 전통(과거스타일)과의 단절 강조

20세기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대 디자인의 가장 큰 목표는 수공업시대 구축해 놓은 곡선적이고 아기자기한 과거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기계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탐색이었다. 이러한 현대 디자인 형성의 기본 원리로 작용했던 모더니즘은 과거와 현재의 뒤섞임으로부터 고통받기보다는 스스로를 재정의 함으로써 과거와의 단절을 취했고 조형예술분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새시대의 형태를 창조해내었던 것이다(김민수, 1994) 따라서 이전 시대에 있었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즉 전통이나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형태가 모던시대의 디자인으로 정착되었다.(Read, 1989). 이런 전통과의 단절현상은 복식 스타일에서도 적용되어 여성의 인체곡선을 강조하던 과거 수 백년과는 반대로 여성 인체곡선을 무시하는 스트레이트한 실루엣의 복식 스타일이 나타났다. 당시 샤넬 스타일은 과거 복식과는 완전 차별화된 새로운 스타일이었다.

모던시대에는 르네상스 이래로 허리를 조이고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여성 억압의 도구인 코르셋으로부터 여성들의 몸을 해방시켰다. 그리고 볼륨 있는 풍만한 인체곡선을 나타내던 실루엣에서 탈피하여 미성숙한 소녀의 몸을 보여주는 듯한 직선적인 실루엣이

유행하면서 가슴은 작게 보이면서 허리와 엉덩이 곡선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과거의 코르셋과는 반대의 작용을 하는 코르셋<그림 16>이 유행했는데 이는 또 다른 과거와의 단절 현상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6. 20년대 코르셋 (Everyday Fashions of The Twenties)

2) 포스트모던시대: 복고풍 스타일(Retro style)의 수용

보들리야르는 "현재를 대면할 때 과거를 사용하곤 한다(Richard & Harold, 1989)."라는 복고주의적 경향에 관해 언급하였는데 이는 20세기말의 예술양식 및 패션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 하겠다. "새로운 창조는 더 이상 없다"는 사고 아래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양식을 혼성·모방하는 절충주의적 경향이 팽배해지면서 복고풍 디자인이 1990년대부터 유행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세기초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복고풍 스타일이 매 시즌 다양한 브랜드에서 선보이고 있다. 인간 중심적인 포스트모던 경향은 내면의 진실한 욕구를 표현하도록 하는데 복식에 있어서 과거의 도입은 이러한 개인의 표현적 창출에 자유로움과 만족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정홍숙, 1998).

1920년대 출현하여 전성기를 누리다가 샤넬의 잠적으로 약간의 공백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샤넬스타일에도 시대의 조류에 순응하듯 복고풍 스타일이 자주 등장한다.

<그림 17>은 아르데코적 복고풍 스타일이며 <그림 18>은 50년대 복고풍 스타일 그리고 <그림 19>는 20년대 전형적인 보이쉬 스타일을 잘 나타낸 복고풍 스타일 복식이다.



그림 17. 아르데코 스타일 ('98 S/S, Mode et M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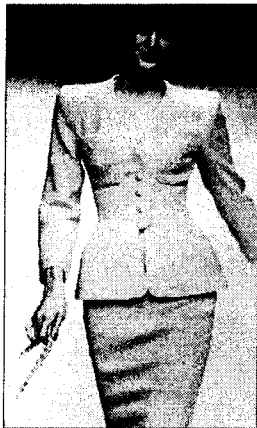


그림 18. 50년대 복고풍 ('95 S/S, Collection)



그림 19. 레트로 스타일
(L'Officiel No.11 -'01/'02 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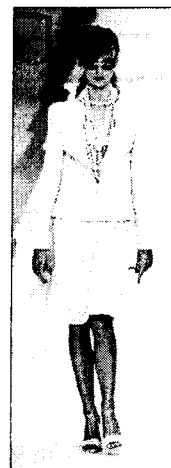


그림 20. 모던 스타일(www.firstview.com Chanel,
'01 S/S)

6. 모던 스타일 관련 특성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지속적인 현상과 모더니즘과 반대되는 현상을 모두 포함하여 변화·발전하고 있다는 이론을 잘 나타내는 현상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샤넬컬렉션에도 모던시대의 스타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색상에 있어서 모던한 색채인 흑색, 백색, 그리고 누트럴계열인 아이보리, 베이지, 브라운 등 모던시대 샤넬이 즐겨 사용하던 색채가 여전히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재는 여전히 직선적이고 절제된 단순미를 표현하기 적합한 힘있는 트위드 직물이나 저어지 개버딘 등 과거에 사용했던 소재들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디자인이나 실루엣도 단순하고 직선적인 스타일이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기초의 컬렉션에서는 거의 매 시즌 단순한 형태에 직선적이 실루엣의 의복들이 약간씩 등장하고 있었다.

앞에서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본 반 모더니즘적 포스트모던한 경향과 더불어 여전히 디자인, 실루엣, 색상, 소재면에서 과거의 모던한 경향을 적절히 잘 혼합·사용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른 패션 트렌드의 변화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브랜드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림 20>은 모던한 색채, 장식 없는 단순한 스타일, 그리고 직선적이고 딱딱한 선에 의한 모던한 경향을 잘 나타내는 작품의 예이다. 그리고 앞의 <그림 19>도 20년대 보이쉬 스타일을 아주 잘 표현한 직선적 실루엣의 모던한 스타일의 예로 들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모던·포스트 모던 시대의 샤넬 스타일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나타난 샤넬 스타일 특성 비교

인체 및 복식에 나타난 특성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1. 인체이상형 관련 특성	작고 마른 체형 선호	키 크고 날씬하면서 글래머러스한 체형 선호
2. 신분 관련 이미지 특성	엘리트층을 위한 고급 이미지	대중적 이미지 수용 및 고급 이미지와의 결합
3. 조화(harmony) 관련 특성	통일감 있는 조화 중시	부조화(no-match mix)의 조화 수용
4. 복고적 스타일 관련 특성	과거와의 단절된 스타일 수용	복고주의 스타일 수용
5. 장식 관련 특성	기능주의 영향을 받아 장식 배제 경향	절충주의적 경향에 따른 장식 선호 경향
6. 모던 스타일 관련 특성	모던시대에 적합한 모던 스타일만 발표	반 모더니즘적 스타일과 함께 모던스타일도 지속적으로 발표

IV. 결 론

시대적 변화과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샤넬'이라는 특정브랜드를 선정하여 모더니즘 시대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의 변화과정에 나타난 두 시대의 작품스타일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던 시대에는 여성적 라인이 배제된 직선적이고 작고 날씬한 이상적 인체에 적합한 직선적 의복 스타일이,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키 크고 날씬하면서도 글래머러스 한 이상적 인체에 적합한 에로틱한 느낌의 섹시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다.
2. 모던 시대에는 엘리트 계층을 위한 고급 이미지의 단순하고 베이직한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으나 대중의 시대인 포스트모던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중적 이미지의 스타일과 저급이미지와 고급이미지를 포함하는 스타일도 많이 나타났다.
3.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의 미적 기준에 적합하게 통일, 균형, 비례 등이 중시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스타일이 주를 이루던 모던 시대에서 여러가지 양식과 전통적 미의 규범이 파괴되는 스타일 등이 등장하면서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부조화의 조화가 수용되어 mix-match스타일이 많이 나타났다.
4. 현대 디자인의 특성인 장식 배제 현상이 복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모던시대에는 단순한 스타일이, 여러양식의 절충적이고 기원적인 스타일이 혼재한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장식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이 나타났다.
5. 전통과의 단절을 최고의 목표로 지향하며 탄생한 현대 디자인과의 특성과 같이 모던 시대의 샤넬 스타일은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실루엣과 코르셋의 유행을 정착시켰으나,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과거의 여러 가지 양식을 응용한 복고풍 스타일이 많

이 나타났다.

6. 위의 반모더니즘적 경향과는 달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다른 특성인 모더니즘의 지속현상을 그대로 반영 하듯 포스트모던 시대의 샤넬 스타일에는 여전히 모던 시대의 스타일이 매 시즌마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발표 되었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브랜드의 디자인 컨셉은 시대정신, 사회 현상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을 선도하는 기업이나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은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패션트렌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지 재빨리 포착하여 브랜드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다가오는 미래의 패션스타일에 나타난 특성을 자신의 브랜드에 결합하여 트렌디한 스타일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 특성

참 고 문 헌

- 강명구(1993). 소비 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민음사
 권명광·명승수(1990). 근대 디자인사. 미진사.
 권택영(1994).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김민수(1994). 모던디자인 비평. 안 그래픽스.
 김민수(1997).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솔.
 김민자(1987). 2차 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권 2호. 69-90.
 김민자(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1). 복식 37호. 103-118.
 김민자(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2). 복식 38호. 369-392.
 김옥동(1994).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 김주영 · 양숙희(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 현상(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1권 8호. 1261-1274.
- 김홍희(1994).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월간 미술.
- 박명희(1991).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성록(1993). 한국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미진사.
- 유송옥(1998). 복식 의장학. 수학사.
- 이미숙(1998). 샤넬스타일 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시화(1992).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 정삼호 · 김영숙(1996).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 정정호 · 강내희(1989). 포스트모더니즘론. 문화과학사.
- 정현숙 · 양숙희(1997). 20세기 후반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3호. 502-515.
- 정홍숙(1995). Postmodern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복식* 25호. 71-83.
- 허준(1992). 파리모드 200년. 유럽문화사.
- Atkins, R.(1990). *Art Speak*. N. Y. : Abbeville Press Publishing.
- Bandot, F. (1996). *Chanel*. London : Thames & Hudson.
- Bell, D. (197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N.Y.: Basic Book.
- Blum. S. (1981) *Everyday Fashion's of the Twenties*. N.Y. : Dover Publications, Inc.
- Bond, David(1981). *The Guinness guide to 20th Century Fashion*. Guinness Books.
- Calinescu, M.(1993)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 시각과 언어*
- Evans, C. & Thorton, M. (1989). *Women and Fashion*. London & N.Y.: Quartet Books.
- Fiedler, L.(1977). *Cross the Border-Close the Gap*, in *Fiedler Reader*, N.Y. : Stein and Day.
- Fischer, C. S.(1975). *Towards a Subcultural Theory of Urbanism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 No. 6.
- Fokkema, D. W.(1984). *Literary History, Modernism, and Postmodernism*. Amsterdam/Philadelphia : John Benjamins.
- Graff, G.(1979). "The Myth of the Postmodern Breakthrough" in *Literature Against Itself : Literary Ideas in Modern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aff, G. 이소영 역 (1989). *포스트모더니즘은 과연 획기적인 변화인가?* 도서출판 터
- Hall, C & Swanson, G. (1983). *The Twenties in Vogue*, N.Y : Harmony Books
- Hassan, I. 정정호 역 (1985). *포스트 모더니즘*. 종로서적
- Haye, A. & Tobin, S. (1994). *Chanel. The Victorian Albert Museum*.
- Howe, I.(1970). *Mass Society and Postmodern Fiction in Decline of the New*. N.Y.: Horizon Press.
- Jenks, C.(1986). *What is Post Modernism*. Academy Edition. St. Martin's Press.
- Kermode, F.(1968). *Continuities*, N. Y. : Random House.
- Leymarie, J.(1987). *Chanel*, N. Y. :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Inc.
- Martin, R. & Harold, K. (1989). *The Historical Mode*. N.Y. : Rizzoli.
- Mcdowell, C.(1984). *Mcdowell's Twentieth Century Fashion*. London : Frederick Mulle.
- Morand, P.(1976). *L'allure de Chanel*. Paris : Hermann.
- Nietzsche, F.(1982). *Die Geburt der Tragödie*. 비극의 탄생, 김대격 역, 청하.
- Sarub, M. 임현규 역 (1991).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사랑

(2003. 12. 17 접수; 2004. 02. 06 채택)